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없나

오리산업 잃어버린 10년, 앞으로가 더 문제
소득은 10년간 변화없고 각종 규제만 늘어

오리협회 충북도지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최광옥 지회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신임 최광옥 지회장은 오리업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오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오리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지회장은 충북 진천에서 20년째 창성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리사육에 앞서 양계장을 10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신임 최광옥 지회장에게 앞으로 오리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오리협회 충북도지회

최광옥 지회장(창성농장)



“
오리산업 잃어버린 10년,
소득은 그대로 규제만 늘어
”



창성농장은 무창오리사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해 질병 유입을 막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소득은 그대로 규제만 늘어

최광옥 지회장은 군 제대 후 곧바로 육계 사육을 시작으로 축산인의 길에 들어섰다. 10년간 육계를 하다가 2000년대 초반 오리로 전업했다.

당시 오리산업이 성장단계 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오리로 전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최 지회장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오리산업은 2010년대 초반까지 고속 성장을 하며 기존 1농장과 함께 현재 5만수 규모의 2농장까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오리산업은 10년째 소득이 변함없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지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과거 고속성장기에는 1년 내내 축사에 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인올아웃제, 휴지기제 등이 시행되면서 1년에 절반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한다.

최 지회장은 “과거 충북에만 200농가 가까이 오리농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90농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며 “그만둔 농가 중에는 육계로 전업한 경우도 많으며 규모가 작은 농가들의 경우 아예 축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규진입은 고사하고 기존 농가들마저 오리 사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오리사육이 경쟁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1. 음수관리기를 설치해 급수를 관리하고 있다.
2. 폐사축처리기로 폐사오리를 처리함으로써 질병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
수시로 드나드는 검사관들은
농장의 HPAI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

황당한 규제,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최광옥 지회장은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방역점검을 받으면서 CCTV를 살펴보면 방역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점검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사인을 해 준적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이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CCTV의 영상기록 의무저장 기간이 30일인데 15일밖에 저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방역관은 과태료 등과 관련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사인만 하라는 식이어서 더욱 황당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1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 처분을 받고 CCTV 저장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최광옥 지회장은 “농가들이 법이나 기계장치 등과 관련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인만 받아갔다는데 화가 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설명해 주고 계도기간이라도 주면 농가들이 안 따라갈 이 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최광옥 지회장은 겨울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회장은 “최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HPAI로 인해 각종 예찰은 물론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물론 검역본부 등에서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는 전화 예찰은 물론 오리를 입식한 이후에도 3번의 정기검사는 물론 출하전 검사까지 4번의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가들에게는 외부출입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검사관들은 수시로 농장을 드나들며 HPAI 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지회장은 인근 오리농장의 경우 3번째 검사까지 음성이 나왔지만 단 3일 후 출하전 검사에서 양성이나와 살처분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최광옥 지회장은 “HPAI 발생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리농가들이다. 관련 공무원 등도 많이 힘들겠지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때문에 HPAI 예방을 위해 누구보다 농가들이 더 신경쓰고 있는데 매일 걸려오는 전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예찰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농가들이 오리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농가 소득 늘려야

“오리농가들이 오리사육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라며 “오리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 중 상당수는 육계로 전업하는데 같은 규모의 축사라면 육계가 좀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최광옥 지회장.

이 같은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최 지회장은 “오리농가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현재 오리농가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농가들이 갈수록 줄어들면 그만큼 오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줄어들어 결국 오리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수입 오리고기가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 지회장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지회장의 창성농장 축사 지붕에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5년 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비 등을 제외하고도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농장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금융권에서 설치비 대출 상품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농가들에게 오리사육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의 경우 오리사육농가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례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 HPAI 예방을 위해 조기 출하 장려금 등이 있다.

최 지회장은 “지난 10년간 오리산업은 반복되는 HPAI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오리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충북도지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콤파인을 개조한 왕겨살포기.

축사 지붕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충당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